

농산물 직판장 농민이 운영

군,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과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운영 관련 업무협약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이 군 직영 체제에서 생산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본격 변신해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1일 군청영상회의실에서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과 순창군농특산물 직판장 위탁운영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 고남숙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그동안 군 직영으로 운영되던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은 2013년 개장 이래 3년 만에 생산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순창군이 지난 2013년 시작한 사업으로 생산자

는 고정적 판매망과 소득 확보를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망 구조다.

순창군 민속마을 내 331㎡규모에 판매대, 바코드 생성기, 잔류농약 분석기 등을 갖추고 230여 종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억 8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은 농특산물직판장의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직영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관광자원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도 초기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농민들이 직접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직접 판매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을 전격 결정하고 지난 7월 초 순창로컬 푸드협동조합을 민간위탁 단체

로 전격 선정했다.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은 순창지역 농민과 가공업자 100명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황숙주 군수는 "그동안 우수한 순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오던 순창농특산물 직판장이 본격적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순창 농산물의 홍보는 물론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직판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남숙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도 "소포장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새로운 유통 혁명으로 각광 받고 있다"며 "내일 있게 운영해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구 정화극장 4가 한화생명 1층 위치에 일자리와 복지민원을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1일 개소했다.

One-Stop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일자리·복지민원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남원시 구 정화극장 4가 한화생명 1층 위치에 일자리와 복지민원을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1일 개소했다.

그동안 일자리 민원 발생 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로 한 번의 방문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민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되었다.

센터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호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초기 상담 등의 부재로 인해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복지 서비스 의뢰 및 서비스의 수급여부 판정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남원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자립지원상담사 및 사례관리사 포함 총 4명의 직원을 파견 중이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 사업

참여 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진 등 고용과 관련한 민원처리는 물론 다양한 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복지, 의료급여, 장애인등록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복지 계좌변경,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약 10종의 사회복지 관련 단순 민원 처리는 물론 민원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담배연기 없는 모정 만들기

순창군, 남계리 모정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순창군이 담배연기 없는 모정 만들기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실제 모정은 동네 쉽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정에서 흡연하는 일일 종종 발생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었던 것.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가치(價値)있게 같이가자'는 슬로건 아래 담배연기 없는 모정 만들기 금연교실을 본격 운영한다. 우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순창읍 남계리 모정부터 사업을 실시한다.

실제 이곳을 이용하던 50년이상 장기흡연자 11명이 금연클리닉 등록을 마친 상태다.

군은 우선 한달에 한번 모정을 방문해 대면상담과 흡연에 대한 폐해에 대해 설명하는 방문 상담

을 진행한다.

또 어르신들도 한달에 한번 보건 의료원을 방문해 CO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금단증상 대처법, 재흡연 예방, 금연 행동 요법제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군은 또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르신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에 성공하면 5만원권 축하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장기간 흡연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클리닉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료원과 흡연자 개인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흡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금연관련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650-5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3개소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인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에 선정되었다.

6차산업화란 농촌의 1, 2, 3차 산업자원을 활용, 연관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으로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 인프라,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품질관리, 기업애로 해소, 산업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홍보·마케팅, 규제 발굴·개선하는 사업이다.

그간 개별경영체 단위시설 설치 위주로 지원하였던, '지구조성사업'은 지역단위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공동인프라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고창군은 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고창 복분자의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선정으로 명실상부한 복분자 명소로서 고창이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복분자 산업이 단순 과실 생산단계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목표달리기

임실군, 무인헬기 공동방제 실시

임실군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농가인력부족 해소와 효과적 인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오는 5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사면 시범방제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무인헬기 방제는 올해는 총사업비 1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오수면까지 확대 실시하며, 방제비의 40%는 군에서, 30%는 오수관촌농협, 농가에서는 30%를 부담한다.

특히 올해에는 오수면 411.6ha, 지사면 464.4ha 총 876ha 면적에 헬기 8대를 동시에 투입해 1일과 2일은 지사면에서 오는 3일과 4일은 오수면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강우나 기상악화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다.

또한, 병해충방제는 벼 수량감소에 많은 피해를 주는 이삭도열병과 세균성 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흑명나방, 멸구류 등이며 분담 후기 종합방제로 실시된다.

한편, 기타 병해충 항공방제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업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640-2683)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훈) 부안파출소(소장 고명희)에서는 1일 오전 4대 사회악 근절 및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상가를 방문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고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면 소재지 상가를 돌며 4대 사회악과 관련하여 고창경찰 활동사항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농번기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지위방범제 확립과 장거리 여행시 사전에 약소할제 적극 활용, 사제 중심 절도형 보이스포싱 예방요령,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자동차 운행시 안전도 착용하기, 보행시 밝은 옷 입기 등을 당부했다.

고명희 부안파출소장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및 치안활동으로 4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부안파출소 직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의무위반 예방 회의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1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각 과·계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위반 행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의무위반 예방대책 특히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과 부적절한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최규은 순창서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안성 의무위반행위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청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찰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농식품 가공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2015년 제5회 농식품 및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 공모전 참가하여 '육포허니볼'로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2016년 사업자로 선정된 메밀꽃피는항아리(대표 장현미)의 농식품 가공우수제품상품화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가공우수제품상품화지원사업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개최한 농식품 가공 및 아이디어 제품 콘테스트 개최하고 수상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상자들을 사업 대상으로하여 농산 가공품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과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사회의 활력 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농식품가공우수제품상품화사업자인 메밀꽃피는항아리(대표 장현미)는 장비 설비 보강 통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생산하여 농외소득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